

총선 1년 앞...석패율제 도입 어떻게 되거나

한나라·민주 찬성...군소정당 반발 심화

선관위 '영·호남 시행안' 곧 국회에 제안 비례대표 쿼터 축소·지역 형평성 걸림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구체화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현재 국회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중앙선관위에 찬성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제도다. 지역구도가 고질화한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호남권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영남권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라는 점 때문에 대표적인 정치개혁 과제로 꼽혀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국회 정계특위와는 별개로 당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석패율제에 대한 내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전라지역의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같은 순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구에서 총 유효투표의 3% 이상 득표한 중복 입후보자 중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 평균유효투표수(유효투표총수/후보자수)로 나눈 수가 가장 큰 후보자가 비례대표에 당선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제도를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해당

시·도에서 중복후보자 당선을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해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하지만, 기존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 등 걸림돌이 상당하다.

우선 석패율제 도입시 기존 비례대표 쿼터가 줄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정치권에 등용시키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석패율제가 '잠식'한다면 정당 의회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여야 하는데 지역구수 축소는 의원들 스스로 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고 국회의원 증원도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형평성 문제도 만만치 않다. 여야는 현재 석패율제를 영남과 호남에서만 적용하는 분위기이지만 타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때문에 군소정당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

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최근 "거대 정당의 지역 나눠먹기"라며 반대 논쟁을 낸 데 이어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5일 이날 국회에서 "누구를 위한 석패율인가"라는 정책 세미나를 열고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타파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전문가와 소외집단의 대표자를 증원하는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등으로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는 한 선거구에 복수 당선자를 배출해 대표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이미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은 일단 국회 정계특위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나 여야 모두 재보선 때문에 논의에 집중하기 힘든 황이어서 논의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일염 품귀...바빠진 손놀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방사성 공포에 휩싸인 국내 소비자들... 전남산 천일염을 사재기하면서 신안군 중도면 중동리 태평염전 직원들의 손놀림이 더욱 바빠졌다. 태평염전에서는 최근 올해 산 천일염을 생산중에 있다. /중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석패율제 대비...광주·전남 한나라 내부경쟁 후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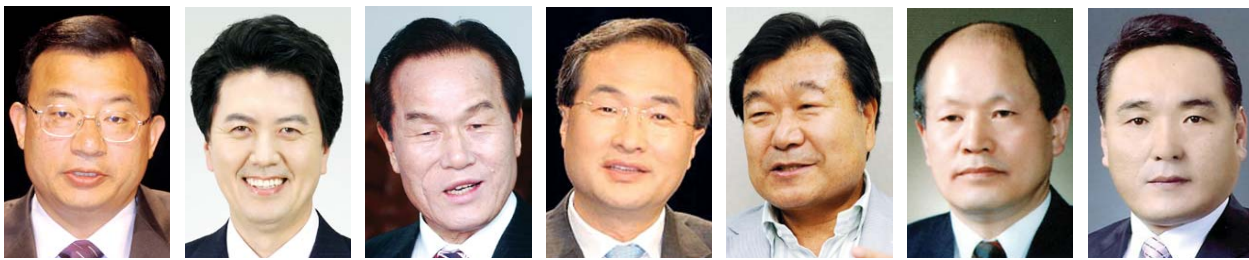
이정현·정용화·박재순·김대식·김문일·김광영·김기룡 등 활발한 행보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인사들의 물밑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실화된다면 광주와 전남에 각각 1석 정도는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나라당 인사로는 현역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호남예산 지킴이'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비례대표)이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구 을 지역에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제에 기대기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당하게 평가받겠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갈등 해소보다는 지역적 편향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정용화 박재순 김대식 김문일 김광영 김기룡

또한, 청와대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정용화 전 비서관도 주목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 14.2%의 득표율을 기록, 역대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광주 서 갑 지역에 출마 11.4%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정현 의원과 정 전 비서관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에서 출마한다면 최고 득표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담양·곡성·구례 지역구의 김문일 위원장과 광양지역의 김광영 위원장이 꼽히고 있다. 김문일, 김광영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각각 12.8%, 18.4%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의 김문일 위원장은 전남도당 위원장에도 도전, 한나라당 인사 가운데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다.

박재순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전남

어느 지역에 출마하더라도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출신의 김기룡 특무장관실 특임실장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후보로 뛰었던 김대식 권의위원회 부위원장장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나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전남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 TV토론 '메이저-마이너 후보' 이원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TV토론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구분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10일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대담 혹은 토론회를 평균 지지율 상위 1~5위와 나머지 후보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TV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이들 기준 가운데 '여

론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만 '최근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로 바뀐다.

또 이번 개정의견은 '방송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종편채널의 방송실시 예정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종편 사업자도 대담 및 토론회 개최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총선·대선에서는 8개 정당 및 후보자가 TV토론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TV 대담과 토론회에 모든 후보가 동시에 참가함으로써 진행이 산만해지거나 찬반 토론에서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제주도

오렌지&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 2박3일 ★ 목포-제주도 ₩139,000원 ~
- 2박3일 ★ 장흥-제주도 ₩159,000원 ~
- 2박3일 ★ 항공-제주도 ₩249,000원 ~

불포함: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 1박2일 ₩279,000원 ~
- 2박3일 ₩309,000원 ~

광주에서 출발하는

홍도

- 1박2일 ₩177,000원 ~

황금연휴 떠나는

무안-타이페이 전세기

5월4일, 5월7일 두번의 찬스!!!

- 4일 ★ (실속)타이완(하루자유+소인국) ₩699,000원 ~
- 4일 ★ (초실속)타이완(야류+온천+소인국) ₩769,000원 ~ ▲5/4
- 4일 ★ (실속)대만/화련/야류(5성급호텔) ₩899,000원 ~
- 4일 ★ (품격)대만/화련/야류(시내5성급+101빌딩+발마사지) ₩1,049,000원 ~

불포함:유류할증료(138,600), 가이드&기사팁

2011 봄 미국/캐나다

- 9일 ★ 미서부 3대개년 태평양 해안 완전일주 ₩2,390,000원 ~
- 9일 ★ 미동부캐나다 동부(퀘벡)나이아가라 완전일주 ₩2,890,000원 ~
- 13일 ★ 미서부(3대개년)/미동부(나이아가라)완전일주 ₩3,590,000원 ~

불포함:각종팁(가이드/기사 1일/1인 \$10,식당,호텔 \$1), 5월이후 유가할증료 인상분, 선택관광, 미국 ESTA 비자피(US\$14 - 대행사 20,000원)

중국

- 3박4일 ★ 무안-상해,장가계,원가계,천문산 ₩949,000원 ~
- 4박5일 ★ 무안-상해,장가계,원가계,천문산 ₩969,000원 ~
- 3박4일 ★ 무안-북경+면산+평요 ₩759,000원 ~
- 4박5일 ★ 무안-북경+면산+평요 ₩819,000원 ~

불포함:유류할증료, 중국비자, 기사&가이드팁

인천 - 베트남/캄보디아

- 6일 ★ 베트남 / 캄보디아 ₩769,000원 ~

기사&가이드팁(\$50),생수,론세샷사공팁(\$2),캄보디아 금형비자피(\$25)

인천-싱가폴

- 5일 ★ 싱가포르 / 조호바루 / 바탐 ₩799,000원 ~
- 5일 ★ 싱가포르 / 빈탄 ₩779,000원 ~

불포함:기사가이드팁(\$40),비자피(\$15),항만세(\$2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리 기밀유지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 공동주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정보원 가입(예약상: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경비(항공, 택시, 가이드, 식사, 숙박, 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예약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